



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CONTENTS

교육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교육목표 기독교적 지도자 / 창의적 전문인 / 자율적 봉사자

NO.384 2021. 06. 14 Mon

발행인 김상식 주간 임태균 간사 조선미 편집장 김가운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351, 8276 http://www.sungkyul.edu



2 보도
제9대 총장
취임식 개최



5 취업
시에게
자기소개서를!



8 기획
2021
성결 FAIR



13 교양
당신의
손톱은
안녕하십니까?

총강사



총장 김상식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먼저 2021학년도 1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 수고하신 모든 학생과 교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교수님과 학우들과 직접 대면하지 못한 채 종강을 맞이하게 된 신입생과 2학년 학생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만남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그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가르침을 받는 학생 간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

니다. 온택트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지적인 교류를 넘어서서 감성의 교류나 인격적인 교류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강의 준비에 이 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신 교수님들과 대학평가, 혁신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결FAIR 등 여러 행사를 주관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코로나 19가 조만간 종식되면 비대면의 임시적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전환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진보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사용하는 토탈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하이플렉스(HyFlex)개념이 등장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

종강사

야 할까요?

교육은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이뤄집니다. 마셜 맥루한이 언급한 것처럼 과거의 커뮤니케이션은 말과 글과 책으로써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로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오감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2학기 수업도 대면 수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육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온라인 교육여건 속에서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온라인 강의 속에서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존재감'(presence)을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프라인 강의일지라도 교수와 학생의 거리가 멀거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라포 형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노력하면 라포형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 모델을 적용하는 일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현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으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접촉점을 갖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런 성육신적인 삶의 원리가 교육의 원리가 되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에게 많은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교육의 현장에서도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수님과 학생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성결대학교의 경쟁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들이 직면한 여러 위기 요인을 극복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방학 기간에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총장은 방학 기간 동안 2학기 교육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학생 여러분들이 더욱 좋은 여건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성결대학교 총장 김상식

미리보기

2030 청년들은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가?

일회용 쓰레기 대란, 그 해결책은?

나에게 건네는 위로



<6면에 계속>



<7면에 계속>



<11면에 계속>

제9대 총장 취임식 개최



지난 4월 29일(목) 오후 2시 본교 예성80주년 기념관 5층에서 성결신학원 이사장 및 본교 총장 취임식이 개최됐다. 취임식은 ▲예배 ▲이사장 이·취임식 ▲총장 이·취임식 ▲축하예식으로 총 4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에서 총회장 김윤석 목사는 '지도자를

위한 기도'라는 설교를 통해 예배를 진행했다. 이어 이사장 및 총장 이·취임식에서는 이임 이사장 김원교 목사의 이임사를 시작으로 ▲취임 이사장 박광일 목사의 취임사 ▲이임 총장 윤동철 박사의 이임사 ▲취임 총장 김상식 박사의 취임사로 취임식의 막을 내렸다.

신임 김상식 총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여기까지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주신 직분에 맞게 총장직을 성실히 행하고 헌신하며 겸손히 짊어지고 가겠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가겠다"고 전했다. 또 "본교를 위



해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고, 미래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 대학교의 전환을 거듭 확인한다"라고 말하며 본교를 향한 목표에 열정을 표했다.

한편, 신임 김상식 총장은 본교 신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회사 전공 철학박사 학위를 받아 육군종합행정학교 상담학 교관 및 본교 평생교육원과 평생대 외래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글/사진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새로운 뜻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지난 5월 18일(화) '제37대 그대의 마음에 한 걸음 더, In your mind 人:D 총학생회' 주관 '2021학년도 성결대학교 해오름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해오름식이란 본교의 ▲기관 ▲단과대학 ▲학과 학생회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으로, 매년 열리는 총학생회의 고정 행사다. 식은 ▲교내 건물 소개 영상 ▲개편된 LMS 사용 설명 영상 ▲기관 및 단과 대학 소개 영상 ▲해오름식 참여 이벤트 진행 ▲개회사 및 총장 축사 ▲학생지원처장 환영사 ▲출범 선언 ▲기수단 입장 ▲동아리 공연 ▲경품 추첨 순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해오름식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커피 기프티콘이 지급됐고, 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해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백화점 상품권 등 파격적인 경품 추첨 이벤트 또한 진행됐다. 손수빈(정통 20) 학우는 "경품 추첨도 꽤 솔깃했으나 해오름식을 통해 본



교 학생회와 각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며 "다시 보기가 지원되는 덕분에 가끔 본교 기관에 대해 모르는 게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본 행사에 대해 만족한 소감을 밝혔다.

글 - 정우민 기자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총학생회 제공

본교 동아시아물류학부 물류인재상 및 장학금 전달식



지난 5월 27일(목) 2시 본교 재림관 8층 총장실에서 제 17회 동아시아물류학부 인재상 및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김민수(동물 16) 학우와 이한솔(동물 18) 학우가 총장상을, 그 외 동아시아물류학부 재학생 13명과 타 학부생 1명이 학부장상을 수상했다.

학부장상을 수상한 윤수(동물 19) 학우는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부장으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이런 값진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수상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수상자는 ▲학교생활 ▲자격증 ▲여학생적 등을 종합해 선정됐으며, 수여식은 동원산업, 로젠택배, 하나종합물류 등 국내 기업들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글/사진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故홍대실 권사 50주기 추모예배

지난 4월 26일(월) 오후 2시 본교 학술정보관 2층 야립국제회의실에서 故홍대실 권사 50주기를 맞아 추모예배가 열렸다. 추모예배는 법인이사 윤완용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은성 목사의 기도로 예배의 시작을 알렸다.

총회장 김윤석 목사는 '그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를 진행했다. 이어 장재혁 이사장과 고정화 교수가 故홍대실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약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감사를 전했다.

끝으로 본교 사무처장은 "코로나19 가운데 학교발전의 공로자이신 故홍대실 권사 50주기 추모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기쁨을

표했다.

한편, 故홍대실 권사는 ▲진지동성결교회 ▲강릉교회 ▲온양교회 ▲목호교회 ▲속초교회 ▲백은교회 ▲고길리교회 ▲대전성결교회 총 8개의 교회를 단으로 건립했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체육교육과 ‘2021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선정

본교 체육교육과는 ‘2021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주관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사업으로 재정·지원된다. 각 대학별 운

동부 정량 및 정성 평가 실적과 실사를 토대로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하며, 본교는 5월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5월 21일 실사 평가를 실시했다.

한편, 본교 체육교육과 운동부는 올해를 포함해 7년 연속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2021 대학운동부 평

가 및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동일 사업으로 6년간 약 2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지원금은 단체복, 대회 출전비, 동계 전지훈련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글 - 오승민 기자 sm961215@sungkyul.ac.kr

사진 - 체육교육과 제공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현황(2015 ~ 2021)

연도	지원금(백만 원)	대학(개)	4년제	2·3년제	국·공립	사립	운동부수(개)
2015	4,000	74	68	6	19	55	339
2016	4,000	82	76	6	18	64	380
2017	4,220	80	71	9	18	62	373
2018	6,800	94	82	12	21	73	426
2019	6,800	100	82	18	19	81	436
2020	7,700	104	85	19	20	84	-
2021	7,700	111	92	19	20	91	469

“다함께 붕붕붕!”

지난 5월 20일(목) 본교 학술정보관 1층 로비에서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개최한 융·복합형 기초공학 캠프의 일환인 ‘2021 라인 트레이서 경진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본 대회는 2개 이상 전공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협업하여 아두이노 지식을 활용해 라인 트레이서 로봇을 제작하고 주행 기록을 경쟁하는 방식이다. 이에 안정적이고 빠른 로봇을 제작하기 위해 이론 및 실습 강의 지원이 들어갔다.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수업을 경험하기 어려운 1학년이 주요 참여 대상이었으며, 여러 실험과 협업이 필요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못했던 학교 시설을 이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끝으로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 ▲4-6등 각 5만 원을 시상했으며, 개인별 행운권 추첨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 직접 참가한 ‘안전운전’팀의



김하은(컴공 21) 학우는 “본교에서 진행하는 공식적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결과는 다소 아쉬웠지만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실험하는 과정이 즐거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주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당 대회와 같이 여럿이서 협업하는 공학 캠프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상기된 마음을 전

했다. 또한 “고급시계”팀의 손수빈(정통 20) 학우는 “대회 일정과 개인 일정이 겹쳐 아쉽게 대회에는 직접 출전하지 못했지만, 직접 실습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배워야 하는 아두이노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 정우민 기자 jelly1110@sungkyul.ac.kr

동연 플레이 리스트 ‘동플리’

지난 5월 24일(월) 오후 5시 30분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본교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동아리연합회 첫 온라인 행사가 열렸다. 동연 플레이 리스트의 줄임말인 ‘동플리’는 간단한 집부 소개를 시작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학생지원과 직원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 학우들이 정답을 말하는 방식의 노래 맞추기 코너에 이어, ▲난센스 퀴즈 맞추기 ▲캐치 마인드 ▲복불복 음식 게임 ▲옥에 티 본교에 대한 신박한 퀴즈 ▲알려는 드릴게 등 다양한 개인 레크리에이션으로 열기

를 올렸다. 쉬는 시간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DM 응원 메시지 이벤트가 진행됐고, 2부에선 학우들의 사연을 담은 ▲라디오 코너 ▲스피드 퀴즈 ▲카카오톡 방 탈출 게임이 진행됐다.

앞선 행사의 채팅창에는 많은 학우들이 “집에서 학교생활을 즐기지 못해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활기찬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본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각 코너의 퀴즈 정답자 및 우승자에게는 추천을 통해 애플워치 SE, 풀라로이드, 아웃백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이 지급됐다.



글 - 정예슬 수습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동아리연합회 제공

싱그러운 5월의 예대 행사, 로티를 찾아라!

‘A Roman Tist’ 예술대학 학생회는 시험 기간으로 인해 지친 학우들을 위해 5월 20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로티를 찾아라!’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행사일에 기념관 1층부터 4층까지 숨어 있는 로티(학생회 집부)의 사진을 찾아 찍은 후, 공지된 시간 내에 학생회관 3층 302호로 가서 사진을 보여주면 행사 참여가 완료된다.

학우들의 마음을 힐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사 취지에 맞게 푸짐한 상품도 준비돼 있다. 제한 인원 없이 시간 내에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사진을 찾아 찍었다면 치킨 기프티콘이, 학생회 집부 사진을 가져온 학우에게는 룽커피 쿠폰이 지급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험 준비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준 ‘A Roman Tist’ 예술대학 학생회. 앞으로 진행될 행사에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길 바라며, 다음 행사 기획에 대한 기대감을 담아본다.

글 - 노하은 기자 dmisu7226@sungkyul.ac.kr

2021 성결 FAIR, 꿈에 날개를 달다

지난 5월 24(월)부터 30일(일)까지 일주일간 ‘2021 성결 FAIR’가 개최됐다. 교육혁신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 함께 주최한 이번 ‘2021 성결 FAIR’은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행사는 26일(수)과 27일(목) 이틀간 본교 학술정보관1층에서 10시부터 16시까지 이뤄졌고, 오프라인 행사를 참여하지 못하는 학우들을 위해 24일(월)부터 25일(화)까지 온라인 행사도 함께 개최됐다.

이번 오프라인 행사는 ▲행사 운영을 위한 ‘운영 ZONE’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역량 인증제를 소개하는 ‘비교과 ZONE’ ▲직무 소개 및 컨설팅을 들을 수 있는 ‘직무 ZONE’ ▲다양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이벤트 ZONE’ 까지 총 4개의 부스로 진행됐다. 또한 온라인 행사는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성과 FAIR’를 열어 ▲2021 역량 인증제 포트폴리오 대회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성과 소개 ▲비교과 라이브를 성결 FAIR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각 부스에 참여해 도장을 2개 이상 받으면 푸드트럭 쿠폰 또는 카페 쿠폰을 지급했고, 본 행사 참여 후 만족도 조사를 한 참여자 전원에게 수건과 마우스패드를 선물로 증정해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행사 방문 부스 수 총족 시 추첨을 통해 갤럭시 버즈, 치킨 기프티콘, 이디야 기프티콘을 지급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학우들이 ‘2021 성결 FAIR’에 발걸음 했다. 오프라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학우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행사를 빛내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미래를 계획 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

글 - 김채린 수습기자 cofls787@sungkyul.ac.kr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는 글로벌 시대에 점차 중요한 요소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앞서가는 성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준비한 <외국어 능력자> 특집! 외국어를 섭렵한 학우들의 자격증 취득 꿀팁과 회화 능력 향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김민규(영문 15) 학우

Q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나만의 토익 공부법이 있나요?

반복만이 고득점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형화된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이기에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풀고 오답노트까지 단권화한다면 여러분의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해커스 토익 실전 1000제 1, 2, 3을 통해 공부했는데, 순차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책 특성상 고득점 준비에도 수월했습니다.

Q 영어회화를 잘하기 위한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영어가 자연스레 입에서 술술 나올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사고 자체를 영어로 바꾸는 방법을 통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말을 영어로 시작해 영어로 끝내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꿈속에서도 영어로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Q 영어를 잘하게 된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달라진 점은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영어에 자신감이 생긴 후 영어가 부수되는 모든 영역에 자신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특히 무역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고 취득하면서 그 자신감이 빛을 발했습니다.

Q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외국에 대한 동경과 영어회화에 대한 갈증이 컸습니다. 누구나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죽기 전에 외국에서 꼭 한 번 살아 봐야지’라는 생각과 유학의 꿈인 거죠. 그래서 군 복무를 마

치고 23살 때 호주로 1년간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Q 해외에서 했던 경험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워킹 홀리데이를 마친 이후 유럽여행을 떠났습니다. 제가 호주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친하게 지내오는 스페인 친구와 프랑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과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도 직접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가이드를 자처하며 그들의 문화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줬고, 서로의 집에서 편하게 지내게 해주며 제게 잊지 못할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Q 영어학습의 최종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현재 관세사라는 꿈에 도전해 1차에 합격하고 2차 준비에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무역 업무를 주로 수행하기에 여러 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은 필수겠죠? 이렇게 영어와 함께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김서진(중문15) 학우

Q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나만의 HSK 공부법이 있나요?

저는 중국에 거주한 적이 있어 듣기 파트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귀국 3개월 차엔 중국어를 잊어버린 느낌이 들었고, 6개월 차엔 거의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반복학습하면서 중국어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1년 반이 지나서야 다시 중국어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반복학습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부족한 유형을 복습해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Q 중국어 회화를 잘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 부티 박람회 갔을 때 기계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일상 대화밖에 할 줄 몰라 메모지에 꼭 질문해야 하는 목록을 적어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며 질문했지만, 돌아오는 질문은 한국인이냐는 물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부스에서 더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박람회의 마지막 날 여러 부스를 둘러 메모지의 질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하고 5분이 지나서야 제가 외국인인지 묻고 몰랐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필요했던 거래처들의 연락처와 언어, 샘플 제품까지 받는 훌륭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중국에 거주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직접 가게를 운영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경제 지식이

없었고 언어 실력도 부족했지만, 이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일도 기억에 많이 납니다. 저는 면허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에 출제되는 1500문제를 중국어로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어 실력이 뛰어나진 않아 오답 수가 10문제 이내로 줄 때까지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갔을 때 한국어 버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번역이 이상하면 저만 손해일 것 같아 중국어 버전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시험 시작 후 중국인 아저씨들이 불합격 퇴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긴장했지만, 97점으로 무난하게 통과해 C1(한국 보통 1종과 유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Q 중국어를 잘하게 된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외국어 학습은 언어를 넘어 문화까지 습득하는 행위여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웬만한 상황은 다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포용력이 생겼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학우분들도 단순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면모를 확장시킨다면 인생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놀면?
똥하니?

성결 스터디

때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있다. 공동의 학습 주제를 가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룹을 형성해 학습성취도와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며 공부하는 성결 스터디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2021학년도 학습 마인드 향상 특강을 수강하고 나서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것이 내게 적합하다고 판단해 성결 스터디에 참여했다. 성결 스터디는 학생들이 공통 학습 주제를 가지고 3명 이상의 학생들로 팀을 형성해 정기적인 협동 학습을 통해 학습 내용을 공유하며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주제별 팀 구성 조건은 전공과목의 경우 동일 과목을 수강하는 팀원들로, 자격증의 경우 동일 자격증 취득 목적의 팀원들로 구성해야 한다. 이 외에 토익, 한국사 등 학습 주제가 같다면 한 팀이 될 수 있다. 또한, 성결 스터디는 학기 중 16시간 이상 활동과 주차별 활동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자는 7월 17일에 실시될 물류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필자를 포함한 3명의 학우들과 함께 '물생물사'라는 팀명으로 성결 스터디에 참여했다. 우리 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를 듣고 각자 공부한 뒤, 구글 미트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모의고사를 풀며 스터디를 진행했다. 헛갈리는 개념은 서로 질문하면서 되짚어주고, 틀린 문제는 다 같이 한 번 더 풀어보며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했다. 1주 차에는 물류관리론, 2주 차는 화물운송론 과목에 대해 학습했고, 이후 주차부터는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 관련 법규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다. 또 이론 강의가 끝나면 기출문제를 풀어 실전처럼 연습할 계획이다. 만약 성결 스터디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서 자격증 공부를 했다면 계획대로 강의를 다 듣지 못하고 강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난관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팀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계획에 맞춰 학습할 수 있었고, 미루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생겨 더 열심히 하게 됐다. 그 결과 모의고사에서 팀원 모두 합격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이수 조건을 달성한 참여자에게는 상품권이 지급되고, 우수팀은 시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만약 혼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학우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싶다면 다음 학기에 성결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산업의 미래

매년 급진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세상에 발맞춰 다양한 형태의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것들이 혁신을 일으키기도 하고 새롭게 개발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최근 떠오르는 산업은 무엇일까? 이번 호를 통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산업들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와 사회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긴 힘들겠지만 일정 부분 회복될 전망이라고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큰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 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전을 이룬 환경 산업과 IT 산업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AI 분야를 다뤄보려 한다.

환경을 위한 박차



환경 산업은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 설비나 기기와 관련된 서비스가 포함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인 바로 전기차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고효율 연비를 갖춘 전기차 개발은 현재 세계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이 방대해지면서 폐기물 재활용 산업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그룹인 아쿠멘티서치앤컨서링에 따르면 2026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매출액이 8.1%씩 성장할 전망이다. 처리 물량 증가와 단가 상승이 시장 규모의 성장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폐기물 처리 방식에도 혁신이 일어났다. 미국 폐기물 처리 업체 1위인 웨이스트매니지먼트 사는 미국 최대 건설 기계 업체 캐터필러 사와 폐기물 수거용 자율 주행 차량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활용 분류 로봇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이용해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질을 한껏 높였다.

끝없는 AI의 행렬



AI는 재활용 및 식물 등 다양한 환경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

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크다. 이렇듯 AI 산업은 끝없는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 IDC는 2020년 국내 AI 시장 전망에 대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7.8%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연구소(HAI)에서 발표한 'AI 인덱스 리포트 2021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 14개국을 종합한 결과, 지난해 관련 채용률은 2016년에 비해 평균 2.2배 증가했다. 수요 또한 7년간 크게 증가했으며, 채용공고는 평균 5배 이상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두각을 드러내는 기업의 수가 적고 기술적으로 후발주자인 만큼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AI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 왔다는 이유로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최승근 한국 IDC 수석연구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AI 인재 양성 및 생태계 구축에 과감한 지원을 해주고, 스타트업과 강소기업 투자를 강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발전을 언급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소개된 두 분야 모두 오래전부터 활동을 이어 왔으며, 오늘날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돼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을 잘 파악해 누구보다 더 빨리 선점해 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사진 - 경기도환경산업포털, 환경산업

[참조] KIET 산업경제, 조선일보, AI타임스

AI에게 자기소개서를!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AI 기술은 우리들의 취업 세상에도 영향력을 펼쳤다. AI 면접부터 이제 AI 자기소개서까지! 이번 호에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둬야 할 AI 자기소개서 분석에 대해 소개해보려 한다.

첫 번째, 시작



2019년부터 시행된 블라인드 채용법은 이력서 양식과 면접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 및 가족 정보를 물을 수 없게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다. 그중 자기소개서 내에 블라인드 채용법에 따라 물을 수 없는 출신 대학을 의도적으로 표시하거나 지원 동기로 부모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AI 자기소개서 분석'이다. AI는 자기소개서를 분석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거름과 동시에 표절 여부는 물론 해당 사와 적합한지 파악해준다.

두 번째, 활용

직접 확인하기 까다로운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AI 자기소개서 분석은 분명 기업 입장에서 가치 있는 기능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적극적으로 활용 중인 롯데그룹은 인재상과 기업의 비전에 대한 키워드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와 표절 여부 및 직무 적합도를 확인하고 있다. CJ그룹 역시 롯데그룹과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인재상과 얼마나 연관됐는지를 분석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비교하면서 중요한 문장을 강조해 평가 시간을 줄이는 보조 역할로써 활용되고 있다. SK 그룹은 직무와 연관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사용한 문장의 의미 및 특성을 활용한다. 또한 문장을 요약해 주고 핵심 단어를 제공해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듯 AI 자기소개서 분석을 통해 ▲인재상 ▲직무 부합 ▲표절률 등에 대해 확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기업마다 활용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자신이 지원할 회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AI 자기소개서 분석은 단순히 자기소개서를 더욱 면밀하게 분석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입하는 시스템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표면적으로 사용을 알리지 않는 곳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AI 자기소개서 분석에 대한 특징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세 번째, 기회

취준생이라면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AI 자기소개서 분석을 미리 겪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용할 수 있을까? AI 면접을 다양한 곳에서 접해볼 수 있듯 AI 자기소개서 분석 서비스도 많은 곳에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전국 대학교에서 AI 자기소개서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본교 또한 3학년이 되면 필수로 진행된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 기업 및 직무를 선택한다. 지원하는 기업의 질문항목을 기입한 뒤 답변 키워드를 선택하면 해당 질문에 대한 합격 사례가 나타난다.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AI는 수정하고 싶은 키워드에 따라 문장을 제공해주고, 선택 사례와의 유사성도 판단해준다. '청년채



단'에 직접 방문해 무료로 분석 받아 볼 수도 있다.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수 지원자와는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주며,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알려준다.

AI 분석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한 이점을 가져다준다. 누적된 수많은 데이터와 우리의 글을 함께 비교해줌으로써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지할 기회를 주고, 어떤 것을 강화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도 한다. 이러한 AI 자기소개서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작성 방법을 더욱 탄탄히 다져보길 바란다.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사진 - 동아닷컴, 본교 홈페이지

[참조] 동아닷컴, 잡코리아



2030 청년들은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가?



2017년 비트코인 열풍 당시, 가상화폐는 투기성 짙은 ‘도박’에 비유됐다. 기성세대는 비트코인이 노동의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비난했다. 소위 ‘근검절약하며 차곡차곡 부를 쌓아온’ 기성세대식 채테크와 다소 엇갈린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권과 기성세대는 비트코인의 ‘한탕주의’를 비난하며 금방 꺼질 ‘거품’이라고 비판했으나, 이러한 우려에도, 지금의 비트코인은 2030세대에게 유일무이한 계층 변화 통로, 마지막 동아줄로 인식되고 있다.

2013년 13만원으로 시작한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을 불리워 2021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기준 약 6300만 원으로 뜨겁게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화폐에 뛰어든 내국인이 300만 명에 달하며, 거래소 이용자의 6~70%가 2030세대라고 발표했다. 하루 거래량만 봐도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뛰어넘어섰으니, 2030세대가 비트코인을 신뢰성이 확보된 투자 자산 및 인플레이션 헤지(hedge·위험 분산)수단이라고 인식한다는 추세를 인정해야 한다.

연간 비트코인 글로벌 시세 (단위: 원)



독립 화폐의 등장, 비트코인의 양면성

비트코인은 분산형 P2P 디지털 화폐이다. 쉽게 말해 ‘코드’로 만들어져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라고 이해하면 된다. 우리가 쓰는 화폐처럼 중앙은행이나 금융회사 등의 중앙기구 개입이 없어 기존의 화폐와는 다른 강한 독립성을 띠고 있다.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돼, 국적 불문 거래되고 있다.

중앙기관이 없음에도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던 것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 덕분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대한 분산형 공공원장’이라고 이해하면 간단하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블록이 생성되고, 기존의 장부에 연결된다. 데이터가 ‘체인’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어, 기록 조작이나 위변

조가 불가능하다. 거래 과정에서 데이터를 다중으로 인증하기 때문에 중앙기구를 운영하는 비용이나, 의심 없이 강력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사기, 탈세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학자인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시장에는 항상 너무 많은 약당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제도 정비 이전의 과도기에 가상화폐 투자 피해자들이 양산돼 차질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부 언론은 비트코인이 불법적인 암거래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의 지나친 익명성이 불법적인 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악명 높은 인터넷 암시장 실크로드가 폐쇄됐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었는데, 실제 암거래를 위해 비트코인을 사들였던 일부 이용자의 영향이었던지는 미지수다.

실제로도 거래소 ‘먹튀’ 사기 사건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비트바이’라는 거래소는 유튜브 광고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마진을 챙기고 거래소를 폐쇄했다.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 용우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도만 이뤄지고 있다”며 비트코인 법안에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OIN)다!”

2030세대들은 이런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비트코인에 합류하고 있다. 투자 수익으로 ‘등록금을 벌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등의 꿈같은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비트코인을 하는 회사원A 씨는 “차곡차곡 돈을 모은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코인에 ‘인생 베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2030세대는 진정 ‘노동의 가치’를 잃고 ‘한탕주의’에 빠진 것일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2030세대의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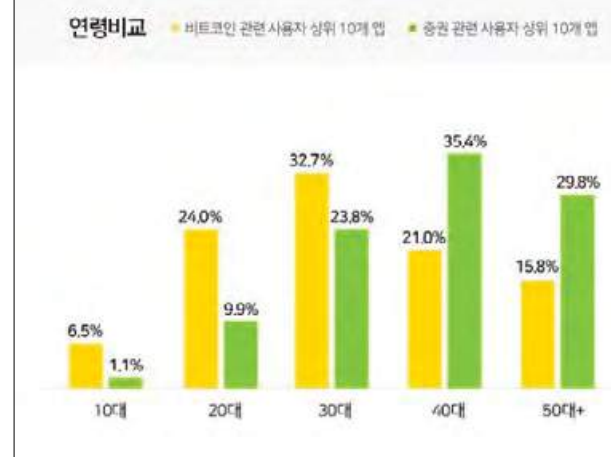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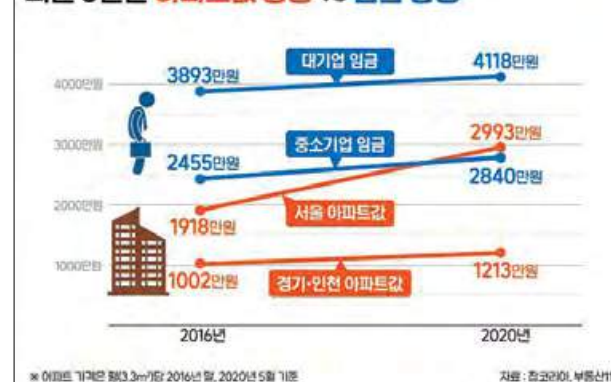
실제로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배율은 6배까지 올라갔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최대 수준으로 벌어져 소득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실제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에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큰 역할을 한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연구에 따르면 부를 축적하는 데 상속이 기여한 비중이 2010년 이후 39.3%까지 올랐다. 김 교수는 “고도성장기에는 자수성가 부를 축적할 기회가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라며 “스스로 번 소득에 의한 저축보다 상속·증여에 의한 이전 자산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흙수저’, ‘금수저’라는 웃지 못할 유행어가 생겨난 지금 부의 대물림이 증가할 전망이라는 의미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이미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2030세대가 가상화폐로 눈을 돌리는 데 한 몫 했다. 이미 주식과 부동산은 기성세대가 자리 잡아 큰 규모의 초기 자본을 필요로 한다. 주식과 부동산에 뛰어들기에 청년계층의 경제력은 뒷받침되지 못한다. 게다가 기득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청년 계층이 격차를 좁히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게 2030세대는 수익성을 보장 받기 힘든 주식이나 부동산을 떠나, 변동성과 수익성이 확실한 비트코인에 탑승했다.

최근 5년간 아파트값 상승 VS 임금 상승



지속되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피로는 2030세대를 좌절시키기에 충분하다.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와 집값을 ‘근검절약’과 ‘규칙적인 근로소득’으로 버텨내기에 진입 장벽이 높은 현실, 2030세대에게 비트코인은 하나의 기회로 비쳐 보이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비트코인 이용자의 말이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5000만원 있어도 흙수저. 몽땅 다 잃어도 흙수저. 그래서 투자를 결심했다”. 비트코인이 가장 원활하게 거래된 2017년이 2030세대의 청년실업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것을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광풍은 젊은 세대의 문제라기보다 불안한 한국 사회의 결과물처럼 보인다. 정부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 방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이 세대에서 마지막 계급 사다리를 타기 위해 위험한 베팅을 지속할 것이다.



글 - 김민진 기자 zzzzzzzzzin@sungkyul.co.kr
사진 - 연합뉴스, 잡코리아
[참조] 한국경제, 국민일보

시리즈 기사 #3

학대를 모를 권리

약자와 동물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학대,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 학대의 실태,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걸까? 이번에는 학대와 관련해 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집어 개인의 관심과 실천 외에도 사회가 취해야 할 절대적 태도에 대해 얘기하며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올바른 선례, 그러나 여전히...

올해 초 각종 SNS에서는 추모의 물결이 일었다. 지난 2020년 10월 양부와 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위한 온라인 해시태그 캠페인 '정인아 미안해'가 그 중심에 있었다. 사람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 만들어진 큰 파도는 아동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사건에 있어 무기징역이라는 선례를 남겼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별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빛을 발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까지도 아동 학대 방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이 잇따르고 일부는 법제화도 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학대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달 초 경기도 화성에서 양부의 학대로 인해 의식 불명에 빠진 2세 입양 아동의 사례만 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학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아동학대는 3만 45건으로 1년 전(2만 4천604건)보다 약 22%(5천400여 건) 늘었다. 해당 통계에 경찰서 등 타 기관에서 접수된 신고는 반영되지 않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수집된 사례만 집계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학대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태가 잇따르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에 나서야 할 인프라의 부족함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동보호 기관 확충과 관련 인력 충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및 개편은 근본적인 학대 예방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올해 보건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42억 원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2조 5천943억 원의 0.16%에 불과하다. 관련 예산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다는 문제로 예산 집행 시 효율성이나 정책 안정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동시에 최의원은 "아동학대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다룰 수 있는 예산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전체 예산이 낮다는 게 더 큰 과제"라며 "이런 한계 탓에 아동보호기관 증설과 인력 충원 등 실질적인 제반 여건을 구축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학대 관련 예산 규모를 늘리고 복지부의 일반 회계로 일원화해야 아동 보호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학대는 비단 사람에게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경기 안성시에서 두 눈이 훼손된 채 버려진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발견 당시 해당 유기견은 두 눈이 파여 있었고, 얼굴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등 사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 관계자는 "보통 유기견이 발견되면 밧에 걸려 다리를 다치거나, 차에 치여 허리가 다치는 등의 모습인데 두 눈이 모두 다친 상황은 처음"이라며 "동물 병원에서 회복이 힘들고 학대가 의심된다고 해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 외에도 ▲강아지 목줄 쥘놀이 사건 ▲길고양이 학대 사건 등 이처럼 경찰에 신고된 동물 학대는 지난 10년 동안 10배 넘게 늘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10%를 넘기지 못했다. 게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작 10명뿐이다. 이를 두고 동물보호단체들은 법원 판결과 양형이 동물권 인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물권 행동 카라 정책팀은 "현존하는 동물보호법에만 기반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행위가 있음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선 재판부가 과거 잘못된 판례를 참고해 동물 학대 관련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인구는 638만 가구에 2019년 대비 47만 가구 증가했으며, 동물 학대 처벌 수준에 대한 질문은 '약함' 응답이 4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인구와 함께 개선되는 동물권 인식에도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그저 가볍기만 하다. 이에 법원은 동물권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해 악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취적인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

아무도 몰라야 한다.

보통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타인에 의해 발견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발견했다라도 증거가 없으면 보호자를 학대 가해자로 신고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서는 신고자의 선택에 아동의 목숨이 좌지우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동물 학대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위기를 마주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나의 생명이 아닌 하나의 '소유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가장 처음 마주해야 할 숙제다.

학대가 사회에서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사례도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을 잘 듣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과한 관심이 때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도 한다. 우리의 관심으로 하여금 약자들이 '학대를 모를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

글 - 정우민 기자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참조] 뉴시스, 연합뉴스, 동물자유연대

이크, 에코!

일회용 쓰레기 대란,
그 해결책은?

과도한 일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해 일회용 쓰레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보다 음식점 배달 포장 수요가 폭증하면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의 사용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쓰레기의 양은 엄청나다. 코로나가 불러온 일회용 쓰레기 대란, 이번 호에서는 업사이클링과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때 헛갈리는 제품들이 많다. 몇몇 일회용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줄 알고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종이는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나무젓가락 또한 종이와 함께 분리수거하면 재활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무젓가락은 녹여서 다시 사용이 가능한 종이와 다르게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나무젓가락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화학물질이 섞인 나무젓가락은 완전히 분해되는데 무려 20년의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은 한 해에 약 800억 개로, 해마다 2,000만 그루의 나무가 젓가락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분해 시간과 제품 생산에 쓰이는 자원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급적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직면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소비자와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다. 나무젓가락을 새로운 제품으로 변신시키는 기업 'CHOP VALUE'는 캐나다 밴쿠버의 업사이클링 스타트업 브랜드

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젓가락을 재활용해 생활용품 및 가구를 제작한다. 버려진 나무젓가락은 CHOP VALUE만의 자체 개발 공정을 통해 무독성 수성 아크릴 수지로 코팅하여 나무 목재와 같은 내구성이 강한 목판으로 재탄생된다. 이 목판을 이용해 ▲책상 ▲계단 ▲노트북 받침대 ▲휴대폰 받침대 ▲선반 ▲도마 ▲젠가 ▲도미노와 같은 제품으로 가공된다. 'CHOP VALUE' 이외에도 수명을 다한 레저스포츠 소재로 가방을 만드는 '오버랩'과 폐우산, 현수막으로 잡화를 생산하는 '큐클리프'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아닌 개인은 환경문제 개선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과 텀블러 사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와 에코백 사용 ▲밖에서 손을 씻고 난 후 종이 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 빨대 사용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거절 ▲철저한 분리수거 등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종결 이후에도 일회용품 배출과 같은 환경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한다. 현 상황을 기회로 삼아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과 활동을 구축한다면 사람들의 높은 참여도와 함께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글 - 김주희 수습기자 wngm15216@sungkyul.ac.kr

사진 - CHOP VALUE / [참조] 스넵, 뉴스핌

지난 교육혁신지원센터 및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주관한 2021 성결FAIR가 5월 26일(수), 5월 27일(목) (온라인의 경우 5월 24일(월)부터 30일(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비교과 FAIR ▲JOB FAIR ▲성과 FAIR ▲이벤트 부스 등 다양한 부스들을 통해 본교의 비교과 및 직무소개, 학생 및 사업 성과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 본교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2021



■ 학생상담센터



■ 교육혁신지원센터



■ 학창업교육센터

#
비교과
ZONE

■ 교수학습지원센터



■ 융합학부



■ 사회봉사센터



■ XR센터

#
운영
ZONE

■ 교육혁신지원센터 본부

#
온라인
FAIR

온라인 FAIR는 5/24(월)~5/30(일) 동안 성결 FAIR 홈페이지에 들어가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부스별로 소개하는 글과 함께 다양한 직무·비교과·포트폴리오 우수작 영상 시청이 가능했다. ZOOM을 이용해 실시간 온라인 직무설명회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참여와 비슷한 구성을 이뤄 온라인으로도 FAIR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사회복지



물류관리



학우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직무에 대해 소개하는 부스로, 총 14개 직무의 현직자를 초빙해 직무별 1:1 컨설팅 및 멘토링을 진행한다.

성결 FAIR

■ 총괄 본부



관광(호텔)



헤어아티스트



영업



방송PD

푸드 트럭



오프라인 페어 참여 후 총괄 본부에서 지급받은 쿠폰을 통해 소떡소떡과 닭꼬치, 추로스 등을 교환 가능하다. 페어 참여로 지친 몸을 간식으로 충전할 수 있어 학우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다.

이벤트 ZONE



■ VR면접
■ AI면접



■ 퍼스널 컬러
■ 인친맷고 내꿈찾기



직무 ZONE



인사



마케팅

■ 1일차 직무
■ 2일차 직무



마지막까지 완벽



외국계기업(해외영업)



게임개발



모바일 웹 SW개발



정보보안



공기업



방송작가

페어 참여 후 방문 부스 수를 충족한 학우들에 한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비교과 부스 3개 ▲JOB 부스 2개 ▲이벤트 부스 2개 이상 참여 후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면 자동으로 참여 요건이 달성되고 온라인의 경우 총 18개 이상의 부스 참여 후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면 참여 요건이 달성된다. ▲갤럭시 버즈 ▲치킨 기프티콘 ▲이디야 기프티콘(5천 원) 등의 푸짐한 경품은 학우들이 마지막까지도 알차게 즐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글 - 정우민 기자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학보사 일동,
2021 성결FAIR 홈페이지

사진기획



날 두고 갈 거예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 날이 갈수록 반려동물 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기 문제가 기승을 부린다. 농림 축사 검역본부의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372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버려진 동물은 로드킬과 질병, 더 나아가 인간을 위한 '번식용' 도구로 생을 마감한다. 행여 유기견 보호소로 가더라도 점점 불어나는 숫자를 감당할 수 없어 이른 안락사가 이뤄지는 추세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신중해져야만 한다. 특히 반려동물을 맞이하기 전, 자신의 행동이 이성적인지 판단해보고 경제 및 주거 여건 등에 대해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사숙고한 끝에 가족이 될 준비를 마쳤다면 사지 말고 입양하자.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반려'가 되자. 또한 인간이라고 해서 생명을 유기하거나 방임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글/사진 - 이서연 수습기자 tjds1596@sungkyul.ac.kr

배달음식 진리의 조합: 떡볶이와 치킨

매운 음식의 최고봉이라 불리며 다양한 종류로 유행을 끌고 있는 떡볶이! 얼큰하고 국물이 있는 떡볶이는 특히 치킨과 곁들여 먹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 그중에서도 일명 '맵짤이'로 통하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청년다방 떡볶이는 다양한 토핑으로 치킨과의 조화를 이룬다. 그렇다면 청년다방 떡볶이의 대표 메뉴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치킨이 이 메뉴들과 어울릴지 알아보자.



BEST 1 청년다방 치즈 폭포 떡볶이 + 네네치킨 쇼킹한 치킨

♣ 떡볶이 가격 : 2~3인분 14,500원, 3~4인분 17,500원

♣ 치킨 가격 : 18,000원



접시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양의 치즈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인 치즈 떡볶이는 청년다방 떡볶이의 맵기가 세지 않아 심심한 느낌을 받은 이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보기만 해도 헛바닥이 아린 쇼킹한 치킨 위에 고소한 치즈를 감싸 먹는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떡볶이 토핑의 파채를 치킨과 함께 먹으면 얼얼한 혀를 지키며 파닭의 맛을 느낄 수 있다.

BEST 2 청년다방 갯잎순대 떡볶이 + 굽네치킨 볼케이노 치킨

♣ 떡볶이 가격 : 2~3인분 13,500원, 3~4인분 16,500원

♣ 치킨 가격 : 17,000원

떡볶이 위에 순대와 갯잎이 함께 나온다. 치킨에 밥을 비벼 먹는다는 뜻의 '치밥'으로도 유명한 볼케이노 치킨은 살짝 매콤한 바비큐 느낌으로 갯잎, 우삼과도 잘 어울린다. 소스가 따로 나와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맛이다. 매운 것을 잘 먹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이 같이 먹어야 할 때 추천한다. 떡볶이와 순대를 함께 먹고 남은 갯잎과 파채를 치밥에 곁들여 먹는다면 그야말로 극락의 맛!



BEST 3 청년다방 옛날 짜장 떡볶이 + 교촌치킨 허니콤보 치킨

♣ 떡볶이 가격 : 2~3인분 13,000원

♣ 치킨 가격 : 18,000원



청년다방 메뉴 중 유일하게 고추장 베이스가 아닌 떡볶이다. 흔히 짜장면에 탕수육, 군만두를 함께 먹는 조합처럼 옛날 짜장 떡볶이에는 허니콤보 치킨을 추천한다. 교촌 허니콤보 치킨은 탕수육 소스처럼 새콤달콤한 소스에 절여져 나와 옛날 짜장 떡볶이에 잘 어울린다. 또한 토핑 자체에도 만두가 들어가 있고, 토핑을 추가할 수도 있어서 후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합이다.

흔히들 즐겨 먹는 조합인 떡볶이와 치킨. 그중에서도 다양한 토핑으로 눈길을 끄는 청년다방 떡볶이와 그 메뉴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치킨을 추천해 봤다. 오늘 저녁은 이 조합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글 - 고은성 수습기자 ges0188@sungkyul.ac.kr

사진 - 해당 업체 메인 홈페이지

구해줘, 맞춤법!

그 시절 국민 예능 무한도전에서 맞춤법에 대해 다뤘던 적이 있다. 방송을 보면서 맞춤법을 헛갈려 하는 멤버들의 모습에 웃음이 끊이지 않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멤버들은 어떤 맞춤법들을 틀렸을까? 이번 호를 통해 무한도전 <훈글> 특집에 나왔던 맞춤법 문제를 풀어보며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보자.

곰곰이 vs 곰곰히

'무한도전'의 새로운 멤버는 누가 좋을지 () 생각해 보세요.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르면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발음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만약 '곰곰이'인지 '곰곰히'인지 헛갈릴 때는 어근에 '하다'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이때 '하다'를 붙일 수 없다면 '-이', '하다'를 붙일 수 있다면 '-히'를 쓴다. 예를 들어 '곰곰히' 같은 경우에는 '곰곰-' 뒤에 '하다'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곰곰히'가 바른 표현이고 '곰곰이'가 틀린 표현이다.

생각건대 vs 생각컨대

감히 () 올해 무한도전을 재석이 다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하건대'의 준말로 '생각컨대'가 맞다.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따르면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하지만 어간의 끝음절 '하' 앞의 받침이 'ㄱ, ㄷ, ㅂ'으로 소리가 날 경우에는 '하'가 통째로 줄게 된다. '생각하건대'는 어간의 끝음절 '하' 앞글자의 받침이 'ㄱ'이기 때문에 '생각컨대'로 적는 것이 맞다. 반대로 '단언하건대'는 어간의 끝음절 '하' 앞의 받침이 'ㄱ, ㄷ, ㅂ'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컨대'로 적어야 한다.

웬일 vs 왜일

하하가 녹화 장소에 이렇게 일찍 도착하니, 이게 () 이냐?

'웬'은 대명사, 수사, 명사를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말로써 '이게 어찌 된 일'을 뜻할 때 사용되고 '웬'은 '왜' 그런지 모르게라는 뜻으로만 쓰인다. 따라서 문장이 이유나 까닭을 의미하고 있다면 '웬'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모두 '왜'로 적으면 된다. '웬일'은 이유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웬'을 적어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

맞춤법을 발음대로 표기하면 틀리는 경우가 꽤 많다. 무한도전 멤버들도 실생활에서 자신이 말했던 것을 바탕으로 정답을 찾다가 오답을 골랐다. 앞서 소개한 맞춤법만큼은 소리 나는 대로 유추하지 말고 정확히 인지하여 앞으로 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글 - 박미경 수습기자 qkralud0827@sungkyul.ac.kr

[참조] 국립국어원

즐거로운 문화생활

w i s e c u l t u r e

음악

나에게 건네는 위로

현대 사회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상에 치여 매일을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어떤 위로보다 큰 용기가 되어줄 노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를 소개한다.



노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장르 발라드
가수 박보람
발매 2018.11.20.

심리학자 박진영의 저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한 권을 진솔하고 담백한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축약한 박보람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는 2018년 11월 20일에 발매됐다. 이 노래는 보다 직설적으로 ‘자존감’을 언급하며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어 마음을 울린다.

나에게 던지는 질문과 대답

“어디서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불안함과 날 감싸 안은 외로움은”이라는 첫 소절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 본 질문일지도 모른다. 끝없이 달려온 우리는 가정과 학교, 직장 내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고민으로 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곤 한다.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힘이 든다면 그때 모두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도 돼”라는 후렴은 첫 소절의 질문에 대한 처절한 대답이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외로운 감정을 인정하고, 솔직한 가사로 듣는 이에게 위로를 전한다.

‘자존감’의 기준은 무엇일까

인생을 살아가며 단 한 번의 방향이라도

“나는 나를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받지 못한 그 시간에 익숙해져서”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 내리고 위축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듯 오르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나를 채찍질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게 봐준다면 자존감도 자연스레 채워질 거라 착각한다. 이는 자존감의 결정 기준을 ‘타인의 시선’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이 아닌 ‘내’가 ‘나’를 좋게 봐줄 때 얻을 수 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필자 또한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갇아먹었다. 상대방과 비교하기에 바빴고, 타인의 모습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

다. 모든 상황에 움츠러 피하는데 급급했던 나에게 짝꿍이 보내준 이 노래는 잠아왔던 모든 감정을 한순간에 터뜨리게 했다.

나는 나를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받지 못한 그 시간에 익숙해져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가사는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썼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서투르더라도 용기를 내 천천히 나를 사랑해보자.

글 - 정예슬 수습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뮤직

영화

‘첫사랑’의 기억

10주년 기념, 재개봉으로 찾아와 잠든 연애 세포를 깨우는 대만판 건축학개론. 알 사람들은 다 안다는 설렘 한도 초과 영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개요 멜로/로맨스
개봉 2012.08.22.
재개봉 2021.04.29.

남주인공 ‘커징팅’과 그의 학교 친구들 5인방은 모범생 ‘선자이’를 좋아한다. 조용히 넘어가나 싶던 어느 날, 커징팅은 수업 시간에 사고를 치고 선자이의 앞자리에 앉게 된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커징팅은 짓궂은 장난을 치며,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선자이에게 책을 내어주고 대신 해 별을 받기도 한다. 고마움을 느낀 선자이는 커징팅의 공부를 도와주게 되는데... 학창 시절 시작된 커징팅의 풋풋한 짝사랑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더욱 아름답게 완성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엔딩 장면이다. 영화의 마지막, 선자이의 결혼식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신랑은 커징팅이 아닌 새로운 얼굴의 남자이다. 그런 그에게 커징팅의 친구는 “우리 축의금도 많이 냈는데 신부한테 뽀뽀 한 번 해도 될까요?”라는 장난의 질문을 던졌고, 신랑은

“먼저 나하고 뽀뽀해야 돼요”라는 의미심장한 대답을 남긴다. 그러자 커징팅은 신랑에게 달려들어 뽀뽀를 하고, 과거의 커징팅과 선자이의 모습을 교차시켜 보여준다. 이러한 커징팅의 행동은 선자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했는지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첫사랑의 기억과 지난 시절에 대한 후회, 그리고 추억을 다시 회상하게 해주는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아련하고 그리운 기억으로 남는다는 말을 제대로 보여주는 엔딩 장면이다.

그 시절의 순수함

이 영화가 더욱 순수하고 풋풋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학교를 배경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어갈 때 가장 잔인한 건 여잔 남자보다 성숙하고 그 성숙함을 견딜 남잔 없다는 것이다”. 미성숙하고 장난스러워 보이는 학생의 모습

일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붉게 농익어가 는 마음을 보여주는 대사다. 되돌아가고 싶은 청소년기를 회상하게 만드는 내레이션 그리고 그 시절의 풋풋함을 표현한 OST와 파릇한 봄 느낌을 연출하는 색감까지 설렘을 나타낸다. 미숙함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15년 전 첫사랑의 아련한 분위기와 놓친 사랑에 대한 후회의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이 항상 그러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사랑을 할 듯 말 듯 한순간이라고” 다 여섯 번을 봐도 여운이 남는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지나가는 봄에게 작별인사를 건네며, 짝사랑의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나의 소녀시대’와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를 함께 추천한다.

글 - 정예슬 수습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영화

경이로운 주거 생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만의 취향을 잘 드러내는 장소는 어디일까? 바로 집이다.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기도 하고 밖에서 쏟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기도 한다. 집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공간인 만큼 시대에 따라 외형 및 주거 형태의 변화가 다양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주거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주거 역사 및 앞으로 기대되는 주거 형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

벼농사가 시작된 삼국시대에 서민들은 초가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다. 초가집은 농사의 부산물인 벼짚으로 지은 집을 말한다. 벼짚이 불에 잘 타기도 하고 썩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이유와 단열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 조선시대까지 서민들의 대표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반면 기와집은 주로 양반이 거주하던 공간으로, 매년 재료를 교체해야 하는 초가집과 달리 한 번 지으면 유지력이 강하다는 장점과 세련된 미를 자랑하는 집이다. 초가집과 기와집에는 온돌과 마루가 있는데, 사람들은 온돌로 난방을 해서 겨울을 보내고, 마루에서는 시원한 여름의 바람을 느끼며 낮잠을 즐겼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가옥은 한옥이라고도 불리며 한국 고유의 멋을 내뿜고 있다.

한옥을 짓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좋은 집터를 수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배산임수는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명당을 찾는 것이 집을 짓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장소를 모색하고 나면 땅을 평평하게 다진 후 집터보다 한층 높게 기단을 쌓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둥이 썩지 않도록 잘 보존하기 위해 기둥을 세울 곳에 주춧돌을 박았다. 그리고 기둥을 세워 뼈대를 만든 후 기와를 올리고 마루를 만들면 한옥이 완성된다.

한옥은 화귀의 공간 흐름 구성으로 건축됐고 자연 친화적인 재료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을 담은 집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한옥은 미적 부분은 물론 환경을 생각한 가옥의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도 각광받고 있다.

필요에 의해 시작된 변화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는 명확한 주택 정책이 없어 주택 형태의 가옥이 자리 잡고 있지 못했다. 1950년대에는 종암 아파트, 개명 아파트 등 5층 높이의 복도식 소형 아파트가 도입돼,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고 계단으로 5층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수고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1세대 아파트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당시 신세대 주거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이후 경기 불황으로 인해 난민 구호 주택이 중심으로 건설되다가, 1962년에 경제개발기에 들어서면서 주택 정책에 대한 기구 및 법이 제정됐고 건축 기술과 건축 자재에 대한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마포에 아파트 단지가 건축되면서 집합 주택의 건설이 더욱 활성화됨과 동시에 서양의 주거 문화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는 마루와 거실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안방이 부엌 뒤편에 위치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서구화의 영향으로 안방의 위치가 바뀌고 입식 위주의 생활과 주거 기능성 및 실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엌과 화장실을 실내에 배치하는 내부 변화가 일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와 유리가 주택 건설의 주재료가 되며 한국 전통 가옥의 전형적인 모형을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주택 외형이 구성됐다. 이후 10층 높이의 고층 주택과 더 넓어진 평형, 편의성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도입돼 지금의 주택 및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 형태를 가진 경제성과 편안함을 모두 담은 2세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지어지게 됐다.



운택한 삶을 꿈꾸다

사회적 상황에 따라 주택 형식도 변화하며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채택되기도 했다. 특히 1980년대에는 핵가족화에 따라 가구 수의 급증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많은 인원을 한정된 토지에 수용해야 했고,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초고층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직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양적 공급이 아닌, 질적으로도 우수한 주택을 짓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편안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고급 건축자재가 도입됐다.

우선, 일반 주택에는 거실이 주택의 가운데에 위치해 구성원들의 편의를 높였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연탄이 아닌 중앙공급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주택에서는 연탄보일러 형식의 난방에서 기름보일러로 점점 바뀌며 더 실용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고급 주택에서는 2층 구조와 2개의 욕실이 있는 형태의 주택이 확산됐다. 특히 1985년에 다세대주택 법안이 통과되며, 외부 계단이나 출입구를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 내부적으로 1층과 2층이 완벽하게 분리된 단독 주택의 임차 공간이 형성돼 생활공간의 분리를 돕기도 했다.



다양성과 개성 모두 잡은 공간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이른 시일 내에 아파트가 분양되던 1990년대와 달리 2000년대부터는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점점 아파트 분양에 대한 건설업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고유한 건설업체만의 특징을 담은 아파트가 설계됐다. 이를 대표하는 것으로 체리색 물딩을 예로 들 수 있다. 래미안, 자이 등의 브랜드를 가진 아파트가 고급스러운 아파트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주기 위해 한옥의 진한 나무색과 유사한 체리색을 사용해 물딩을 처리한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주택 및 아파트에서 체리색 물딩을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큰 유행을 끌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인식이 변하듯, 선도적인 인기를 끈 체리물딩은 이제 사람들에게 배척 대상이 됐다. 체리색 물딩이 눈에 잘 보여 집이 더 좁아 보이는 느낌을 준다는 인테리어 전문가의 의견과 북유럽 스타일의 무채색을 기반으로 한 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이 높아지며 점차 다양한 주거 형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인과 함께 살지만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팡퐁 주택, 아기자기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원주택, 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타운 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들이 건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가구는 물론 페인트, 소품 등을 통해 자신만의 안락한 공간을 꾸미는 사람들이 증가해 점점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자신의 개성과 이상을 담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집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3요소 중 하나이자 최고의 휴식 공간 및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형태는 바뀔 수 있으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미래에는 알고리즘처럼 주거자의 평소 생활 패턴에 따라 집 온도를 조절하고 요리와 옷 스타일링을 추천해주는 주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 실제로 에너지 절감 시설과 AI가 접목된 '에너지 제로 주택'이 현재

주목받고 있다. 빠르게 흘러가는 발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집의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집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살펴 보면서 바쁜 일상 속 집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최대치의 만족감과 행복함을 누리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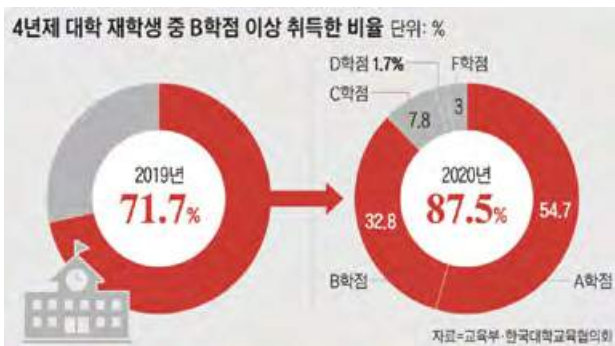
그것이 알고싶다

학점 인플레: 다다익선?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유행한지 어느덧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다. 코로나는 의식주를 포함한 인류 영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교육 분야도 이를 피하진 못했다. 대다수의 대학은 기존 수업 방식에 변화를 줬고, 갑작스러운 변화로 혼란스러운 학생들을 위해 높은 학점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내놨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다. 하지만 취업 경쟁에 있어 고학점자들이 많다면 과연 학생과 기업 양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1 학생을 위한

코로나 이후 대학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변경됨에 따라 부정행위 등으로 성적 평가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대두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대학 측에선 제각각의 방안들을 내놨다.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의 성적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지난 4월 30일 교육부와 한교협에서 195개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로 진행되는 소규모 강의의 비중을 늘렸다. 그러나 앞선 대안들은 결과적으로 학점의 상향 평준화를 가져왔고 학점의 가치는 자연스레 떨어지며 '학점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완화된 학점 부여 방식은 오히려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또 다른 불안과 문제를 안겨줬다. 지방 국립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전반적으로 성적이 높아지면서 학점에 대한 의미가 퇴색돼 취업 시장에서 수도권 지역 학생들과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어학연수나 대외 활동 등 신경 쓸 요소들이 늘어난 셈"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코로나 시대 대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폴로 랄프로렌 인사와 김수환 과정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취업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봤다.

#3 학생에 의한

최근 공기업에 포함된 일부 기업들에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용적인 스펙을 가진 지원자를 뽑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현상으로 학점은 앞으로의 취업시장에 있어 과거와 달리 절대적인 지표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난 5월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서 43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필수 스펙'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13%의 기업이 학점을 '필수 스펙'으로 꼽았다. 학점은 단순 수치화된 스펙임과 동시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의 기초지식·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자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질 우려와 혼란은 당연하다. 이에 대학에서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 방식을 연구해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생들도 무작정 코로나를 탓할 게 아니라 비대면 강의로 단축된 시간을 활용해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등 채용동향을 살피며 직무역량에 연관된 스펙을 쌓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전문가와의 인터뷰

Q.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대졸 신입사원 모집 시 서류 전형에서 학점 중요도의 변화를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 문제를 떠나 학점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평가 지표 중 하나입니다. 기업에서는 학점을 통해 지원자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가늠할 수 있고, 이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자료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단기간 진행된 코로나의 영향이 평가 기준으로써의 학점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겁니다.

Q.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87.5%의 학생들이 B학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3.0 이상의 학점을 받기 쉬운 구조가 됐는데, 이런 '학점 인플레'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방제용 드론은 한 명이 한 대만을 조종학점 인플레로 인해 학점은 지원자를 결정짓는 절대 지표로서의 의미보다는 최소한의 지표로서의 의미가 더 짙어질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평가 지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3.0 이상의 학점을 받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의 학점이 그 점수 이하라면 지원자의 자질에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코로나 이후 변한 취업시장에 따라 변동된 채용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용기준보다는 채용방법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면접 방식도 언택트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과거 외국계 기업들이 주로 택했던 수시 채용 방식에 국내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는 트렌드이기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별개로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온라인 Tool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취업 준비에 있어 지원자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Q. 코로나로 인해 학점을 제외하고도 대외 활동을 통한 스펙 쌓기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더 집중적으로 전략을 짜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스펙 관련해서는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고자 했던 노력과 경험은 면접에서 좋은 스토리가 될 것이고, 장애 환경을 극복하고 성취를 이룬 경험으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전략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열정으로 전문성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글 - 오승민 기자 sm961215@sungkyul.ac.kr

사진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참조] 매일경제



당신의 손톱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신체 부위를 통해 건강에 대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중 손톱은 가장 빠르고, 틈틈이 확인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중 하나다. 특히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잠깐씩이라도 건강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거울을 보다가 평소보다 노랗게 뜬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고 놀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얼굴이나 손등이 노랗게 뜨는 현상을 황달이라고 말한다. 황달은 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로 얼굴이라는 신체 부위가 간 건강에 대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처럼 우리는 얼굴 혈색만 보고 간에 이상이 생겼는지 알 수 있다. 안색뿐만 아니라 ▲혀 ▲눈 ▲손톱 등의 신체 부위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지금 이 글을 읽는 학우들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단연 손톱이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잡학사전, 당신의 손톱으로도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면?

(2) 지금 제 손톱의 상태는요?

지금 한번 손톱을 들여다보자. 건강한 손톱은 연분홍빛이 돌고, 손톱 뿌리에 흰색 반달이 반듯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평소에는 그저 지나치기만 했던 손톱의 상태를 통해, 내 손톱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보내고 있었던 이상 신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손톱의 색깔이다. 만약 손톱 색깔이 유난히 노랗다면, 곰팡이균 감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곰팡이 균은 손톱에 퍼지면서 색깔을 노랗게 변화시킨다. 손톱 색깔이 푸르스름하다면 심장이나 폐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다. 동맥 중의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손톱 끝까지 피가 통하지 않아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또한 손톱의 색깔이 창백한 흰색이라면, 손톱의 핏기가 없어진 것이므로 빈혈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것은 손톱의 변형이다. 만약 손톱 모양이 울퉁불퉁하다면 이는 손톱 끝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못해 생기는 현상으로 철분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또한 손톱이 예전에 비해 두꺼워졌다면, 무좀균이 손톱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신호다. 무좀균이 계속해서 자란다면, 그만큼 손톱은 두꺼워진다.

세 번째로 확인해 볼 것은 손톱 외관에 생기는 특이한 무늬들이다. 손톱에 하얀 점이 생겼다면 어딘가 부딪혀 생



긴 상처일 수도 있지만, 만약 하얀 점이 손톱이 자라면서 계속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연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또한 예전에 못 보던 검은색 줄무늬가 생긴다면, 흑색종일 수도 있다. 흑색종은 피부의 멜라닌 세포가 변형돼 생기는 피부암이므로 병원에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3)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요!

그저 지나치기만 했던 손톱 하나만 유심히 봐도, 이렇게 많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다. 최근 바빠진 현대 사회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는 것에 소홀해져 자신의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몸의 변화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호에서 소개한 건강 이야기를 보고, 하루에 1분씩만이라도 이에 투자한다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글 - 김채린 수습기자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티스토리

[참조] 시사저널, 헬스조선

기자 칼럼

늦은 밤, 잠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노하은 기자

나는 침대에 등만 붙이면 환한 불빛이나 큰 소리에도 금방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잠드는 것에 대해 별다른 걱정이 없었고, 피로가 느껴질 때 숙면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18살 무렵, 이러한 나의 오랜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큰 소원이자 간절함이라는 것을 난생처음 깨달았다.

불면증을 처음 겪었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의아함이었다. 쉽다고 느껴진 숙면이 더

는 쉽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그동안 희망했던 진로가 사라지면서 어느 학과에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몸은 곧바로 반응했다. 잠들기 위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눈을 감아 양을 세어보기도 했지만, 잠잔 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다.

두 번째로 불면증이 심해진 시기는 작년 중순이었다. 길었던 수험생활 끝에 대학을 입학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줄이 취소되며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러한 상황에 권태와 억울함을 느낀 내게 또다시 불면증이 찾아왔다. 이때는 잠을 자려고 노력하기보다 잠에 들 날을 기약 없이 기다렸다. 친구들이 통화하다 먼저 잠들고 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나를 가득 안았고, 홀로 기나긴 밤을 지새우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반복적인 일상을 보냈다.

잠들지 못한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나는 다감하게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핸드폰 혹은 창밖을 보며 지나간 하루를 되돌아보거나 잊히지 않는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오랫동안 겪은 불면증 탓에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의 악화를 느꼈고, 밤 11시가 되면 잠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마음 한쪽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바심과 집착은 오히려 숙면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잠을 자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점점 숙면을 포기하게 됐고 ‘언젠간 잘 수 있겠지’라는 심정을 갖게 됐다.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나를 숙면에 취할 수 있게 했다. 내려놓은 마음가짐이 도리어 내게 도움이 된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계기로 길을 헤맸 때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만 마음으로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느리더라도 조금씩 나아가는 방법을 실천하는 중이다. 탈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유행어가 생길 만큼 현대인들의 삶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업무와 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릇의 용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채워짐이 있다면 비워냄도 있어야 물이 넘치지 않듯 우리 또한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편한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자세이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병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평온한 마음을 갖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당신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안정을 취하고 감정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글 - 노하은 기자 dmlsu7226@sungkyul.ac.kr

체험 에세이

공간이 주는 의미



문예빈 기자

올 초, 필자는 13년간 살던 정든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가게 됐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유치원생이었던 내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공간을 꾸미기 위해

패브릭 행잉 포스터, 블라인드, 화분 등 방 안을 장식할 만한 인테리어 소품들은 모조리 구입했다. 새로운 공간에 온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쁜 공간에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심히 공간을 꾸밈음에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에서는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마저 정리하지 못한 집 속에서 나의 어릴 적 모습이 담긴 앨범을 발견했다. 그중엔 집을 배경으로 한 사진도 많았다. 그때 필자는 깨달았다. 집은 단순히 주거기능만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내 삶이 담기고 감정이 깃든 공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집 안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꿈꾸며 미래를 그려 나간

“
집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추억이 깃든 공간
”

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한다. 즉, 집은 곧 ‘나’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내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왠지 모를 공허함과 묘한 거리감을 느꼈던 것은 아마 이곳에서의 추억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일지도 모른다. 익숙함에 길들여져 집은 추억이 저장된 공간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으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생활들은 다 추억이 돼 있었다.

집은 물리적인 공간 그 이상이며, 나의 과거와 현재, 더불어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금의 집에서는 몇 달밖에 지내지 않아 십여 년간 살았던 집에 비해 쌓인 추억들이 비교적 적다. 하지만 과거의 내가 그랬듯, 이 공간에서도 회로애락을 느끼며 나의 한 시절을 그려 나가고 싶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수많은 눈물과 웃음이 담겨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다. 똑같은 일상에 지친 몸을 당신의 공간에 가만히 눕혀보자. 위로가 필요한 날, 스쳐가는 추억 사이로 공간이 주는 의미는 그 어떤 위로보다 달콤할 것이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진실 혹은 거짓

“과연 나는 진실과 거짓 중 무엇을 더 원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단연 진실을 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때로 우리 마음 한쪽에 선 거짓을 원하기도 한다.

필자는 항상 누군가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랐다. 모든 행동과 말에서 진심을 느끼길 원했고, 그렇게 행동했다.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혀를 붙잡아야 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들은 말을 타인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았다. 이건 필자 스스로가 세운 절대 규칙이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말을 아꼈다. 기분이 나쁜 상황에도 티 내지 않았고, 기

쁜 상황에도 즐거운 감정을 빨리 눌러 담았다. 요동치는 감정으로 말실수하거나 행동이 과장될까 하는 ‘혹시 모르니까’라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필자는 분명 진실을 추구하려 했던 행동이었다.

진실만 추구하다 보니 어느새 감정 표현을 못 하는 사람으로 남아버렸다. 소위 ‘거짓’이 필요한 상황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서이다. 필자가 말하는 거짓이 필요한 상황은 이와 같다. 예를 들어, 알바 현장에 뽀글 머리를 한 사장님이 서 계신다. 이때 필자는 사장님의 머리가 별로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침 인사로 사장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사장님 머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라고.

“이게 무슨 거짓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에게 이러한 말조차 어려웠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로 여겨지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친구 집 단에서 벗어나 사회 집단에 한 발짝 들어가 보니, 이런 한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깨닫게 됐다.

상대방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진실함만 말하려 입을 꼭 닫고 말을 아꼈더니, 상대방은 자기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필자가 했던 행동은 상대를 전혀 기쁘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필자의 의도를 왜곡해 받아들이는 때도 있었다.

“거짓이라도 만들어 상대를 즐겁게 하

라”는 주의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거짓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람은 진실을 추구하지만, 상대방에게 진실만을 바라지 않는다. 어쩌다 나온 거짓 하나에 감동 받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모든 것을 아는 친구 사이에서는 굳이 필요하진 않아도 처음 만난 사람과 뒷사람에게는 관계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기도 한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거짓이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 술수가 아니라면, 그 거짓은 사용해도 좋다. 단, 어디까지나 진실이 우선돼야 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함을 잊지 말자.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주간사설



임태균 교수
동아시아물류학부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단상

7월 23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성사 여부를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최근 긴급사태를 해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4차 유행 국면에 접어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4천 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쿄 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 200여 개국에서 모여드는 수만 명의 선수단으로 인해 도쿄올림픽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의학계가 밝혀 충격을 안겨다주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5일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기존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가장 높은 수

준인 4단계인 '여행 금지'로 상향시킨다는 발표를 했다. 미국 정부의 발표 이후 일본 내에서는 취소나 연기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83%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개최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쿄 올림픽 개막을 1년 연기하면서 시설과 장비마련 등을 위해 국내외 업체와 2천 건의 계약을 갱신했는데, 만약 올림픽 개최를 취소하게 된다면 배상 책임은 일본 정부와 도쿄도에 있다. 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는 1조 8천억 엔(약 18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올림픽 개최가 취소되게 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경제적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관광 수용 중지 결정에 따라 국내 관광만 수용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도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될지 미지수이다. 만약 올림픽 개최 취소가 아닌 무관중 경기를 치르게 될 경우에도 약 9천억 원 어치의 입장권 수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일본이 떠안게 될 경제적인 타격은 가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더더군다나 일본이 취소를 요청하면 올림픽 개최 계약을 위반하게 되어 거액의 배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시 도쿄올림픽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IOC는 막대한 중계권 수입과 글로벌 기업의 후원 수입을 잃게 된다. 중계권료는 IOC 수익의 무려 70%를 차지한다. 미국 NBC방송이 IOC에 지급하는 도쿄올림픽 중계권료는 14억 5000만 달러(약 1조 6088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하면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 올림픽 취소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지부진하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 속도에 박차를 가하여 5월 24일부터 도쿄와 오사카에 대규모 접종 센터를 설치하며 백신 접종을 본격화한 결과 6월 2일 현재 1차 접종을 마친 접종자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더불어 올림픽 일본 선수단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개시하여 7월 중순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림픽 역사상 대회가 취소된 것은 1916년, 1940년, 1944년 등 세 차례였고 이 세 번 모두 세계대전으로 인해 취소가 결정됐다. 이 중 1940년 올림픽 개최 예정지는 도쿄였다. 물론 1964년에 성사된 도쿄올림픽으로 일본 경제는 상승장구하며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현지 점에서 1940년에 무산된 도쿄올림픽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시 상황 속에서 올림픽 개최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비극의 서막이 되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바이다.



이시윤 교수
동아시아물류학부

2030세대의 '빚투' (부동산·주식·코인)

빚투는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의미의 조어이다. 그런데 요즘 20대와 30대들이 빚투의 중심에 있다는 걱정스러운 지적이 언론매체를 오르내린다. 빚투의 대상은 부동산 주식 코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고공행진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고 너도나도 빚투 대열에 합류했다. '영끌'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흠어져 있는 아주 자잘한 돈까지도 끌어모은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집값은 오르지만 하니 '패니바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안정된 직업이 있다면 은행을 통해 용자를 얻어 집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단순히 빚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택의 안정된 공급과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어서 '영끌'과 '패니바잉'이 없는 사회가 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은 주식시장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너도나도 주식을 하고 있다. 월요병이 사라지고 회사로 가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주식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월요일은 주식개장이 있으니 주식 하는 즐거움에 회사 가는 것도 즐겁다는 뜻일 것이다. 이처럼 국내 주식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들을 '동학개미'라고 한다. 국내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도 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시장은 그 나라 경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개미들의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천 대 박스 권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3천 대 초반을 지지하고 있다. 개인들, 즉 개미군의 힘이 크다. 주식 또한 자기 능력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빚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라고 볼 수는 없다. 끝으로 코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 키움증권에 따르면 21년도 5월 14일 기준, 암호화폐 거래액은 31조 원, 주간 거래소 방문자는 58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주식 거래액을 웃도는 수준이다. (벼락 거지 면하러다 1년 치 연봉 다 날렸다...2030 '공황'/한국경제/ 2021.05.22.) 요즘 언론에는 거의 매일 가상화폐 관련 뉴스가 뜬다.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으니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가상자산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가 있다. 지난 4월에는 8천만 원대이던 비트코인

이 5월에 4천만 원대로 곤두박질쳤다. 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중이다. 오를 때도 터무니없이 오르더니 떨어질 때도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친다. 투자자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피 말리는 심정일 것이다. 이런 불안정한 장세 때문에 투자도 투기도 아닌 도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주택과 주식은 실체가 있다. 주택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란 실체가 있고, 주식은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있다. 그러나 코인은 실체가 없다. 앞으로는 어떤 가치가 부여되어 실체를 가지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중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여 소수의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실험을 하는 중이다. 미국도 한국도 디지털화폐를 계획하고 있다. 디지털화폐 시대의 도래는 비트코인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미래가 불확실한 코인에 목숨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겠다.

각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옆의 표에서 지워주세요.

각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옆의 표에서 지워주세요.

반	화	코	도	중	림
학	전	점	스	레	짓
려	아	동	가	세	무
인	개	비	플	청	인
트	문	물	이	이	션
크	강	락	한	년	강

문제의 답을 모두 지우고 남은 글자를 조합해 단어를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각 문제는 이번호 기사의 관련 용어를 가리킵니다.

지난 호
정답

- 이번 사회면은 ○○○○에 열광하는 ○○을 주제로 작성됐다.
- '이크, 예코!'에서는 ○○○을 재촬영한 스타트업 회사를 다뤘다.
- '사진기획'은 ○○○○을 잘못 대하는 세상의 문제점을 꼬집어 말하고 있다.
- 우린 한 학기가 시작되면 ○○, 한 학기를 마치면 ○○이라고 말한다.
- '구해줘 맞춤법'은 ○○○○에서 다른 맞춤법을 소개하고 있다.
-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를 다룬 코너는 '슬기로운 ○○ 생활'이다.
- 인터넷 강의로 학점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상황을 ○○ ○○○○○이라고 한다.
- 2021년 학보사는 본 호를 포함해 총 ○개의 학보를 발행했다.

응모기간 : 7월 9일(금)까지

응모방법 : 학보사(학생회관 223호)로 제출 또는 학보사 인스타그램(sku_press)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란>

독자 참여

성결대학교사에서는 학우들의 귀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퍼즐과 함께 학우들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관심있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 다음 호에 다뤘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 만약 다음 호부터 새로운 코너를 기획한다면 생겼으면 하는 코너가 무엇인가요?
- 학보사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학부(과) : 연락처: 이름:

거침없는 청년정신 / 도전하는 기자정신 / 잘나가는 학보사

학술정보관

2021년 독서인증제 안내

1. 대상: 학부 재학생

2. 방법: 선별된 도서를 읽고 독서인증시스템에 독서활동(서평 및 독후감상문)을 등록하면 심사 후 검증 완료 시 독서인증서 발급

3. 독서인증서 발급 기준: 2021년 3월~12월 7권이상 서평 인증

4. 독서인증서 발급: 2022년 2월 예정

<인증기준>

- 600자 이상(A4 반장 이상)
- 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검사 시행시 표절률 30% 미만

<혜택>

- 서평(독서 감상문)작성 시 1권당 학술정보관 마일리지 1000점 부여
- 비교과 S-포인트 1.0 부여

<서평 쓰는 방법>

학술정보관 로그인->'독서인증'메뉴->도서선택->서평쓰고 저장

<독서인증 선정도서>

- 독서토론 프로그램<나의 소신을 찾아서>도서
- 파이데이아 권장도서
- 도서 비도서 북큐레이션 도서